

다시 부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⑦

史山人 問圭峰宗密禪師
사산인 문규봉종밀선사
凡修心地之法 爲當悟心即了
범수심지법 위당오심즉요
爲當別有行門 若別有行門
위당별유행간 약별유행문
何名禪門頓旨 若悟心即了
하명선문돈지 약오심즉요
何不發神通光明
하불발신통광명

중성퇴실 시위우부관행
巖爲智人之行哉
기위지인지행재

그러므로 상호(相好)나 신봉에 대해서는 근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마음을 관조하여 믿음과 견해를 참되고 바르게 가져 단(斷)이나 상(常)에 빠지지 말고 선정과 지혜의 두 수행문에 의지해서 마음의 때를 다스림이 옳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他教家 亦有龍辨觀行 深淺得失
타교가 亦有龍辨觀行 深淺得失
대교가 역유간변관행 심천득실
其義甚詳 爲學人 唯習言說
기의심상 지위학인 유습언설
或高推聖境 不能內求自心 亦不

사산인(史山人)이 규봉 종밀선사에 게 투기를 "마음을 닦는 법이 바로 마음을 깨닫게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수행하는 문이 있습니까. 만약 별도로 수행하는 문이 있다면 어떻게 선문(禪門)에서 말하는 돈지(頓旨) 수행 단계를 뛰어넘어 단번에 깨닫는 종지(宗旨)라 할 수 있었으며, 만약 마음을 깨달았다면 왜 신통광명을 일으키지 못합니까" 하였다.

答曰識水池而全水 藉陽氣而踏踏

선정과 지혜 두 수행 의지해서
마음의 때 다스림 옳고도 옳다

달달식빙이전수 자양기이음소
悟凡夫而即眞 資法力而修習
오범부이즉진 자법력이수습
氷銷氷水流潤 方望蘇蘇之功
빙소빙수류은 방정제척지공
妄盡則心靈通 始發通光之應
망진즉심영통 시발통광지응
修心之外 無別行門
수심지외 무별행문

혹고추성경 불능내구자심 역불
能鍊磨日久 知其功能耳
능연마일구 지기능이귀
且如元鏡法師云 如諸世間 愚夫觀行
차여원효법사운 여제세간 우부관행
內計有心 外求諸理 求理彌細
내계유심 외구제리 구리미세
轉取外相故 還背理去遠 若天與地
전취외상고 환배리거원 약천여지
所以終沒受無窮生死
所以終沒受無窮生死

이에 대답하기를 "얼은 연못이 다 물임을 알지만 빛을 받아야 녹는 것처럼 범부가 곧 진리인 줄 알지만 법력을 빌려 닦고 익혀야 한다. 얼음이 녹으면 흐르는 물이 되므로 물을 대고 씻는 보람이 있고, 망념이 다하면 마음이 신통하므로 비로소 신통과 광명이 일어나는 것이니, 마음을 닦는 외에는 따로 수행하는 문이 없다" 하였다.

以是當知 不愁相好 及與神通
이시당지 불수상호 급여신통
先須返照自心 信解眞正 不落斷常
선수반조자심 신해진정 불락단상
依定慧二門 治諸心垢 即其眞矣
의정혜이문 치제심구 즉기진矣
의정혜이문 치제심구 즉기진矣
若也信解未正 所修觀行 皆屬無常
약아신해미정 소수관행 개속무상
終成退失 是謂愚夫修行

교종에서도 관행(觀行)의 깊고 얕음과 잘되고 잘못됨을 잘 분석하여 그 뜻이 자상하지만 학인들은 오직 언어만 익히고 혹은 성인의 높은 경계로만 미루어 둔 채 안으로 자기 마음에서 구하지 않고, 또한 오래 연마 하지도 않고 단지 공능만 알려고 한다.

이래서 원효법사는 이렇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의 관행은 안으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모든 이치를 찾고 그 이치를 아주 세밀하게 찾다가 그만 바깥 현상계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도리어 이치를 등져서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 이 때문에 타락하여 끝없는 생사를 받게 된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팔공산의 가을색이 짙었다. 아름다운 화엄세계가 진경 산수화처럼 펼쳐진 팔공산은 그 모습 그대로가 우주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팔공산자락 지모골 대원사에 주석하시는 벽봉스님은 오늘도 산에 계셨다. 시지스님과 직업복을 입고 절벽에서 넘어진 나무를 운반하고 계시던 벽봉스님은 "참선이나 일이나 정진하기는 같은 것이지"라며 노동과 정진이 둘이 아님을 강조하셨다.
"옛날에 백장스님이 계셨어요. 날이면 날마다 추

큰 스님과의 대화

벽봉스님

팔공산 대원사 조실

우나 더우나 논밭에 나가 일을 하시거든, 8순 노인이. 어느 날 제자들이 쉬시라고 쉼과와 샅을 숨겨 버렸어요. 그러자 백장스님이 공양을 하지 않으셨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을 안 먹겠다는 것이었지요. 하하하"

백장스님의 청규를 하루도 잊지 않고 계시다는 스님은 그래서선지 78세라는 세수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지키고 있었다. 스님결에 앉아 법담을 청했다.

“자기가 중심인 진실한 삶”

—가을의 끝자락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왠지 세월의 무상함도 느끼게 되는 것이 중생심인가 싶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요.

▲그렇지요. 세상은 자주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 하셨지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했어요. 이 우주가 가만있는 것 같아도 무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면서 온갖 굴곡을 다 겪습니다. 하루동안 한 생애를 살면서 지겨움과 기쁨, 슬픔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루, 한달, 일년, 10년, 100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70평생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치를 안다면 다음생을 위한 공부를 해야지요. 그러나 세월과 계절의 변화는 물론 무상한 모든 것에 도달하고 집착하는, 상대적인 분별심과 차별심에 허덕 허덕대는 안돼요.

이런 집착을 떠나기 위해서는 누구나 평상심을 가져야 합니다. 평상심은 자기 자신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마음이지요. 평상심이란 것이 보통때 갖는 마음처럼 생각하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닦치는 대로 살아가는 범부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심과 일체의 경계를 초월한 마음을 말하지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며 바르게 생각하는, 정경과 정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자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를 자각하면 평범한 일상에 매몰되지 않게 됩니다. 자각을 이루는 사람만이 평상심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님, 날씨가 추운데 산에서 울력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오히려 몸을 바를 모르겠습니다. 상좌스님들도 극구 말리신다고 들었는데요.

▲옛날부터 울력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어떤 인과인지 내겐 일복이 끊이지 않아요. 쉬려고 해도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두질 않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요. 일을 계속 하니까 상좌들도 따라 일을 해요. "너희들은 공부

- 23년 경북 성주수
- 36년 해인사에서 설석우스님을 은사로 득도
- 39년 해인사에서 하동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 48년 해인사에서 설석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 수지
- 50년 해인강원 졸업
- 67년 경북대 문리대 철학과 졸업
- 70년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
- 82년 대구 보현사 주지
- 92~94년 대구 동화사 주지
- 현재 대구 팔공산 대원사, 철곡 송림사 조실



해라" 살짝 나와 일을 하면 어느새 상좌들이 거들러 나오곤 하지요. 몇 년 전에 나무를 베다가 떨어져 중상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뒤부터 내가 산에 가면 흑 다칠까 염려를 많이 합니다.
13세에 해인사로 출가 후 밤하고 나무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15살이 되던 해 인가 가업을 이으려고 집에서 독학이 심해 속가로 돌아갔지요. 집에 가니 세속의 삶에 빠져들더군요. 22세때인가 철도 참에서 2년을 근무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말리는 부모님을 뒤로 하고 절에 다시 갔습니다. 기면서 다짐했지요. '부처님 제가 절에 가면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린 날의 결심이었던 지금까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불사도 많이 했는데 들어켜보면 출가수행자에게 사관소임은 그리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잠시 경험해 보는 것에 머물러야지 그 속에 빠져들면 자기수행에 소홀하게 될 수 있어요.
요즘은 힘이 부쳐 하루 두 세시간밖에

울력을 못합니다. 일과 선(禪)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저 행(行)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틀이 아닌 이치를 깨닫게 돼요.

—노동과 땅의 결실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같은 가치가 빛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에 카지노가 들어서 사람들의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 로비사건 등으로 온 나라가 술렁거립니다. 배금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활을 자조하게 되고 양심과 도덕은 점점 실방을 잃고 있습니다. 부패지수가 높아가는 이사회에 경책을 주십시오.

▲돈은 버는 게 우선이 아니라 마음자세·생활패턴을 바르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물이나 재화가 최소한은 있어야겠지만 너무 큰 욕심을 내는 것은 자신과 주위사람들을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재화라는 것은 결국 내가 많이 가진 만큼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쁜 만큼 남에게는 눈물을 주는 것이 아쉽지요.

옛날에 어떤 노스님이 계셨어요. 스님은 상좌들과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답으로 만들었어요. 절 살림도 어느 정도 펴게 됐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 옥답을 눈여겨 본 마을사람이 찾아와서 눈을 넘겨달라고 해요. 스님은 아무 주저함도 없이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상좌스님들은 힘있게 개간한 눈을 넘겨준 노스님이 원망스러워 따져 물었지요. 스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길 "그 눈이 어디 갔느냐?" 되물어요. 그러면서 황무지를 개간해 쓸모있는 논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그 또한 좋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갔으니 우리에게겐 돈이 생겼고 그 사람은 알뜰하게 농사 지어 추수하면 그 또한 좋은 일이니, 다 잘된 것 아니냐고 하니 제자들이 활짝이 없어요. 눈이 그대로 있는데 누구의 것인들 무슨 소용이 있는나는 거죠. 세상이란 크게 보면 내 것 내 것이 없어요.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소유하겠다 욕심 부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갈월시 영탑(靈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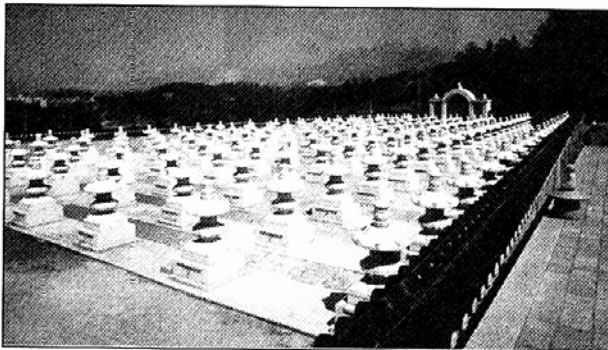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미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으로 평안히 영생케 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시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입니다.
모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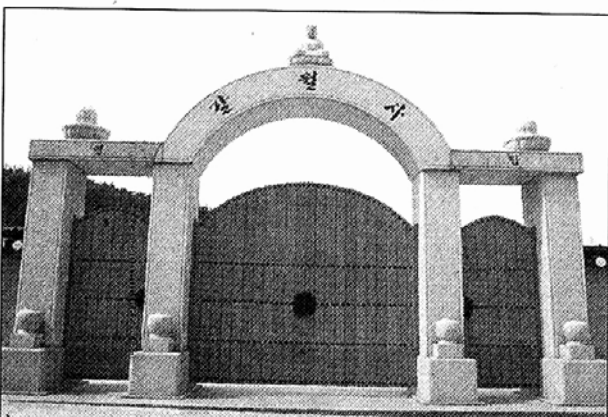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 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갈월사에서 직접 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양구에게서 올립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기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기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문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 방문